

### Gemcitabine에 의한 약물 유발성 간질성 폐렴 1례

인제 대학교 일산 백병원 호흡기내과, 중양 내과\*, 진단 방사선과\*

함초롱\*, 이석현, 진재용, 이혜란\*, 김수영\*, 김미영\*, 이성순

배경: Gemcitabine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nucleoside 유사체로서, 비소세포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약의 호흡기 부작용은 일시적인 기관지연축에서부터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까지 다양한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Gemcitabine에 의한 심각한 폐독성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cytokine에 의해서 매개되는 폐포 모세 혈관벽의 염증반응에 의한 폐포막의 비정상적인 투과성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저자들은 Gemcitabine에 의해서 유발된 간질성 폐렴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3세 남자로 2002년 7월 기침, 사성으로 내원하여 폐조직 검사상 선암(병기Ⅲb)으로 진단되었다. Taxol과 Cisplatin의 병합 항암 치료 2주기 시행 후 추적 관찰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오른쪽 이하(submental) 림프절의 크기 증가 소견보여 Gemcitabine과 Vinorelbine으로 항암 치료법을 변경하여 6주기 시행하였다.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건성 기침이 발생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오른쪽 폐야에 간유리 음영 증가 및 망상형 음영 증가, 폐용적의 감소 소견 관찰되었다. 감염성 질환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제에 의한 간질성 폐렴 의심하에 prednisolone 60mg을 투여하기 시작한 후 환자의 증상 및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소견은 호전되었다. 이 후 prednisolone을 유지하며 Gemcitabine 사용하였으며 간질성 폐렴은 악화되지 않았다.

### 기관지내 전이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서창균, 박순효, 서용우, 박훈표, 최원일, 한승범, 전영준

폐장은 흉곽 외 종양의 전이가 흔히 발생하는 장기이지만 대부분 폐 실질 내로의 전이이고 기도내로의 전이는 매우 드물다. 기관지내 전이는 그 빈도가 낮아서 국내에서 다수의 증례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본원에서 진단된 폐 외 종양의 기관지내 전이 11례의 증례를 후향 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굴곡성 기관지경 검사로 기도 내 병변을 확인하고, 조직학적으로 종양이 확인된 경우를 진단기준으로 정하였으며 11례 중 남자가 6명, 여자가 5명 이었고,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은 58.2세 이었다. 원발 병소는 자궁경부암 4명, 유방암 2명, 대장, 위, 전립선, 간암, 흑색종이 각각 1명씩 이었다. 원발 종양이 진단된 시점과 기도 내 전이가 확인된 시점과의 평균 기간은 26개월 이었으며 전립선암의 기관지내 전이의 경우는 기관지내 전이가 초발증상 이었다. 주 임상증상은 기침 5명, 객혈 3명, 호흡곤란 2명, 무증상 1명 이었으며, 기관지내 전이 부위는 단일 병소가 3례, 다발성 병소가 8례 이고, 기관지 부위별 빈도는 우폐엽 기관지 38.5%, 좌폐엽 기관지 19.2%, 우측 주기관지 15.4%, 좌측 주기관지와 우측 중간기관지가 11.5% 기관 3.9% 이었다.